

광양시, 벤처기업 육성 본격 '스타트'

민간 주도의 벤처밸리 기업협의회 발족

24개 벤처기업 구성 벤처밸리 조성 박차

광양시는 지난 27일 포스코와 함께 광양지역 벤처기업, 창업보육 기관 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위한 벤처밸리 기업협의회를 발족하고 벤처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여수광양항만공사 대회의장에서 개최된 '광양 벤처밸리 기업협의회 킷오프 행사'는 정현복 광양시장, 포스코 오규석 신성장 부문장, 이시우 광양제철소장, 김

성희 광양시의회 의장, 안성수 벤처기업 협의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벤처밸리 구축 추진방안, 협의회 구축을 위한 MOU 체결, 벤처기업 협의회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크쇼 등을 통해 벤처밸리 기업 협의회 구성을 위한 토론회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벤처밸리 기업협의회는 광양 지

역 24개 벤처기업으로 구성되어 벤처기업 운영에 필요한 안전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광양시 주도하에 광양벤처기업센터, 전남테크노파크, 광양창조경제혁신센터, 광양보건대,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5개 창업보육기관이 지원에 나선다.

기업협의회는 특히 포스코 벤처밸리의 3대 중점 사업 분야인 ▲소재/에너지/환경 ▲바이오/신약 ▲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를 대상

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기업들 간의 기술 교류를 추진하고 벤처마킹 등을 통해 건강한 벤처생태계를 구축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현복 시장은 "민간 주도의 벤처밸리 기업 협의회를 통해 벤처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내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청년이 돌아오고 고용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광양시가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생태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여수시, 벼농사 종합평가회 개최

여수시는 지난 26일 소라면 대곡마을에서 '2019년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업인, 유관기관 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벼농사 작황 분석과 종합평가, 농업현장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여수시는 쌀 생산과 유통현황 분석, 생산기술별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을 담은 자료집을 농

업인에게 배부했다.

행사장을 찾은 여수시 고재영 부시장은 이상기온과 태풍 속에서도 묵묵히 농촌 현장을 지킨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시 관계자는 "평가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며 "쌀 생산농가와 소통하는 자리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송기훈 기자

순천시, 다가구 주택

상세주소 직권 부여

순천시는 원룸, 다가구주택, 2세대 단독주택 등 관내 316개소 건물에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 상세 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세주소 직권 부여제도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 없이 담당자가 직접 현장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직권으로 주소를 부여하도록 지난 2017년 법적근거가 마련된 제도이다.

그동안 상세주소 부여제도는 건축주나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부여함에 따라 구조변경 등으로 불이익을 우려해 신청을 기피하였으나,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직권 부여가 가능해 각종 불편이 발생되거나 분실되는 등 불편 해소는 물론 응급상황 시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주민생활에도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순천시는 상세주소 부여 건물 420개소 중 지난해 104개소에 주소를 부여하고 올해는 316개소에 대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발생하게 되는 건축물은 인허가 준공과 동시에 직권으로 부여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세주소에 대한 홍보와 직권부여 제도를 병행해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영광군, 국가균형발전사업(물무산 행복숲) 우수기관 표창



영광군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주관 '2019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물무산 행복숲 조성사업'이 '우수' 등급을 받아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영광 물무산 행복숲은 국가균형발전사업의 목적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삶의 질 향상,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사업 추진에서 좋

은 평가를 받았다.

영광군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 시설이 전무하였으나 '물무산 행복숲'이라는 종합적인 산림복지 불균형을 해소했다.

또한 계단과 경사가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숲속둘레길 10km를 생활권에 만들어 일상 속 걷기를 통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지극히 평범한 산에 숲속둘레길, 유아숲체험원, 물놀이장, 편백명상원, 맨발힐링길 등 만들어 개성 있는 산림복지숲으로 탈바꿈 시킨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은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균형위는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한다. 물무산 행복숲 또한 이번 우수사례집에 실려 타 지자체에 성과를 공유한다. 재정인센티브로 확보한 국비 2억 원은 2020년도 임도사업에 사용된다.

김준성 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관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군민이 행복한 영광군 건설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화순군,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화순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사업과 규모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400대 ▲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20대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 15대 ▲PM-Nox 동시 저감 장치 1대 ▲건설기계 매연 저감 장치

부착 3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9대다. 사업비는 9억8000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한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멜론 활용 프로그램 개발 착수

곡성군이 지역 특산물인 멜론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플레이팜(play far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곡성 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은 30년 이상의 생산재배기술을 기반으로 고품질 곡성멜론을 체험 및 관광을 연계하는 농촌융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그대로의 멜론은 물론 음식, 가공, 체험, 관광 등 멜론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멜

론융복합체험 센터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플레이팜은 멜론을 놀이, 체험, 돌봄과 융합해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Play melon, Play farm'이라는 콘셉트를 토대로 멜론 드로잉, 멜론 빙수 및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세부적인 계획을 구상 중이다.

곡성=김광휘 기자

구례군-농협, 지자체 협력사업 발굴

구례군과 NH농협 구례군지부, 지역 농·축협은 지난 18일과 25일 2차례 걸쳐 농협 구례군지부 회의실에서 2020년 지자체 협력사업 발굴 업무협약의 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관내 농업인과 품목별 농업인단체의 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진행되었으며 농촌 인구고령화 등으로 어려워지는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규사업 9개를 포함한 16개사업, 20억 규모로 논의되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대형농기

계(22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1,345톤), 컨테이너박스(10,800개), 파레트(370개), 공공비축미통백 포대(5,000매), 수박 수직 재배시설 설치(15동), 한우 특성화 계획교배(4,000두), 한우 혈통 등록(6,000두), 축사지붕 지동개폐 시설(5개소) 지원 등이다.

지자체 협력사업은 지자체와 농업이 힘을 모아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